

'반려악기'로 같고 닮은 연주 실력 뽐내

익산시, '1시민 1악기 프로젝트 악기 발표회' 개최... 26팀 164명 참여 5개월 강습 마무리

누구나 일상에서 음악가가 될 수 있는 '익산시 1시민 1악기 프로젝트'가 시민들에게 무대 위에서 예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다.

시는 27일 송리문화예술회관 중공연장에서 '1시민 1악기 프로젝트 악기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26팀, 164명 수강생이 참여해 악기 강습을 통해 같고 닮은 연주 실력을 뽐냈다.

1시민 1악기 프로젝트는 시민이 모두가 쉽게 악기를 배우며 즐길 수 있는 '반려악기 시대'를 열어가며 강습에서 악기 기증까지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날 발표회에 참여한 시민음악가들은 2월부터 5개월간 반려악기를 통한 강습을 마무리하고 지인, 가족, 친구들과 함께 악기 발표회를 통해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배우고 싶은 악기를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정해 강사를 파견해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전개돼 중단없는 강습을 이어갈 수 있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그동안 시간적 여유가 없고 경제적으로 부담됐던 악기 강습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발표회를 통해 악기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 넣음으로써 인식의 효과를 거뒀다.

이번 발표회는 큰 무대에 올라갈 기회가 거의 없는 시민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주고, 나아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화에



익산시는 27일 송리문화예술회관 중공연장에서 '1시민 1악기 프로젝트 악기 발표회'를 개최했다.

술 단체 및 기관 등 다방면으로 시민이 직접 주체가 되어 반려악기를 배우고 뽐낼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줬다는 평가다.

민들레 팀의 한상희 수강생은 "악기를 배우고 함께 협주하고 화음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통해 서로 존중과 배려를 배울 수 있는 즐거운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돼 뜻 깊은 추억을 함께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철도관사마을 장구 팀의 서재호 팀장은 "마을 경로당에서 주민들과 장구를 배우고 싶었

는데 마침 좋은 기회로 1시민 1악기 프로젝트를 접하게 되어 5개월동안 행복하게 배울 수 있었다"며 "기회가 되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배우고 싶은 열정이 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반려악기로 일상에서 이웃과 문화와 예술을 즐기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많이 노력하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스탬프 투어 '신나는 박물관 여행'

국립익산박물관, 7월 1일부터 관람객 대상 선착순 기념품 제공

국립익산박물관(관장 최홍선)은 오는 7월 1일부터 관람객 대상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스탬프 투어 '신나는 박물관 여행'은 국립익산박물관 및 미륵사지를 배경으로 각 지정장소에서 미션을 수행하고 스탬프를 찍은 참여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는 300명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상품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투어를 완료한 참가자에게는 '2023년 국립익산박물관 일러스트 투어'를 참여선물로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방법은 지정장소(본관 및 어린이박물관 안내데스크, 옥상정원, 미륵사지 관광안내소)에서 스탬프북(1인 1부)을 수령한 후, 스탬프

북에 적힌 9가지 미션 중 5가지 이상을 수행한 후 스탬프를 획득하면 된다. 완성된 스탬프북을 본관 안내데스크에 제출하면 참여선물을 수령할 수 있다.

국립익산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관람객에게 국립익산박물관의 다양한 콘텐츠와 공간을 알리고자 기획했다"며 "혼자 또는 친구, 연인, 가족과 함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만큼 율여를 박물관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립익산박물관 누리집(<http://iksan.museum.go.kr>) 및 공식 SNS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군산으로 통해(通海)!'展 개최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지리적 특성·지역 역사 등 군산 조명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27일부터 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군산으로 통해(通海)!'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팬데믹 이후 일상 회복을 기념하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군산에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와 군산으로 통한 문화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기획했다.

총 5개월간 진행되는 전시 기간 중 주요 유물을 교체해 전국의 근현대 유물 100여 점 이상을 한자리에 볼 수 있을 예정이다.

전시는 총 4부로 구성된다. △1부 (바다의 입구)에서는 생명의 근원인 물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선사시대 주거 모습과 고대 금강 일대에서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던 기록을 근거로 군산의 지리적 특성을 알아본다.

△2부 (바다 위 무수한 섬)은 고군산군도 관련 기록을 통해 기차지·표류지로서의 군산을 살펴본다. 군산(群山)이라는 지명은 '바다 위 무리 지은 여러 개의 섬이 마치 산처럼 보인다'는 뜻으로 군산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섬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 해양교류의 중심지 군산을 조명한다.

△3부 (과도치는 조선)은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일제강점기 수탈의 근거지가 되었던 군산의 아픔을 돌아본다. 수탈을 위해 군산에 머물던 일본인, 소위된 조선인의 편에 섰던 선교사, 저항 의식을 잃지 않고 항거한 군산 사람의 의지를 유물과 사진 자료를 통해 되짚어본다.

△4부 (미래로 통하는 길)에서는 전북 유일의 항구도시이자,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 같은 국제행사를 통해 다국적 관광객을 맞이하는 장소



가 된 군산의 미래상을 그려본다. 새만금 간척사업, 스카우트 활동, 마라톤 관련 유물은 우리가 살아온 가까운 과거와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곧 역사가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의 특별한 점은 사람과 환경이 지닌 이야기를 바탕으로 군산을 조명해 금강과 서해의 물길을 따라 군산에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풀어냄으로써 타 지역에서 찾아온 관람객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군산을 처음 방문한 관광객도 지역의 역사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했다"면서 "전시를 보신 모든 분이 내가 지금 와 있는 군산이 어떠한 곳인지 관심을 갖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노년의 삶도 가치가 있다... 연극 '고물은 없다' 완주 온다

완주문화재단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 다시지원 분야 선정 재창작 작품

노년의 삶도 가치 있음을 보여주는 연극, '고물은 없다'가 (사)한국연극협회 완주 지부 주관으로 더 짜임새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완주군민을 찾는다.

이 작품은 약장수의 물건을 사는 어르신들이 그 물건이 비싼 걸 알고도 구매한다는 인터넷 뉴스 한 줄에서 시작되었다. 약장수가 무심한 '자식보다 낫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한다.

연출을 맡은 정상식씨는 "이 연극을 통해 노인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늙어간다는 것에 대한 삶의 찬연한 무게를 함께 공유하는 지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는 7월 3일에 봉동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4일에는 구이 술박물관에서, 6일에는 삼례 행정복지센터에서, 11일에는 소양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연극이 상연된다.

연극 '고물은 없다'는 완주문화재단(이사장 유희태)의 2023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 다시지원 분야에 선정되어 재창작된 작품으로, 자세한 내용은 완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부장



최초전시지원 프로젝트... 강성숙 작가 첫 개인전 '민화, 한지에 스며들다'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오는 7월 7일까지 전북예술회관 3층 산마루 전시실에서 강성숙 작가의 첫 개인전인 '민화, 한지에 스며들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 전시는 최초전시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내 최근 5년 이내 개인전 이력이 없는 경력단절 시각분야 전문예술인을 대상으로 개인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획했다.

강성숙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전통의 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전북예술인 복지증진센터(063-230-7430~7433)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